

### 보성군, 돌봄로봇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시범 운영

외로움·우울감 호소하거나 치매 증상 보이는 어르신 선정  
장시간 움직임 없으면 문자·인사 등 간단한 대화도 가능

보성군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 방안으로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하고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외로움·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 30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돌봄 로봇을 보급했다.

인형처럼 생긴 돌봄 로봇은 미리 시간을 맞춰두면 식사, 약 복용 등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 또는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에게 알림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고 역할을 한다.

또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치매·독거노인의 경우 가족 동거 노인에 비해 하루 식사 및 약 복용을 잊는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의 제약을 겪으면서 앞으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하며, 보성군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발 앞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2021년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홀로 사는 어

르신들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구축에 힘을 예정이다.

보성=김영순기자

### 함평군, 등굣길 치매파트너 홍보 캠페인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기대



함평군은 함평경찰서와 함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치매파트너’ 슬로건을 걸고 등교시간 관내 8개 중·고등학교 앞에서 치매파트너 및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월26일 밝혔다.

지난 3월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상담콜센터 홍보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매파트너 양성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를 말하며,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하게 된다.

군은 이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바로알기 ▲치매인식개선 ▲치매예방수칙 ▲치매파트너(플러스) 역할과 활동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함평경찰서와 협력해 치매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등록 및 배회감지기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따뜻한 함평 만들기에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영순기자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전남광역치매센터,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협력 다짐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24일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3개 기관은 ▲치매수행기관과 협력을 통한 치매환자 자원

연계 지원 강화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 관리 및 치매 인식 개선 ▲치매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보유 자원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시는 전남광역치매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치매 인식개선 행사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광양=심종섭기자

### 화순군, 치매환자 가가호호 방문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희망자 50여 명 대상

화순군이 군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치매환자 ‘1:1 가가호호 심터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희망하는 5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주2회 가정을 방

문한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상반기 생일인 대상 가정에서는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작은 생일파티를 열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

립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우울증을 덜어 주며 대상 특성에 맞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대상 가정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